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들을 위한 해독제를 강구하라

모든 증상이 치유될 것이다.

한 상인이 도적 떼가 우글거리는 숲 속을 지나려할 때 무기를 준비한다. 한 여행자는 전염병으로 황폐한 전염병으로 황폐한 지역을 지나려 할 때 여러 종류의 약을 챙긴다.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되는 감정적인 복병들 즉, 분노, 욕망, 자만, 질투 그리고 그 밖의 많은 감정들을 적절한 해독제로 언제나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주의 깊게 경계하는 것은 진지한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훌륭한 수행자들은 잠재돼 있다가 불속 튀어나오는 감정들이 유발시키는 어려운 상황에 대한 반응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에 즉각적으로 해독제를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있다면 장애를 이겨내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가 행위 주체와 행위 대상이라는 상대적 개념을 초월하는 법을 안다면 모든 생각이 스스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어떤 노력이나 도움 없이 뱀이 스스로 꼬리를 풀고 앞으로 나아가듯 말입니다.

당신의 모든 생각과 개념의 자국들의 근원을 찾아보면 이것들이 서로 다르지 않은 본성 즉, 모든 것을 초월한 지혜와 떼어낼 수 없는 공성을 지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불교 수화동영상으로 법음 전한다

조계종 장애인전법단, 수화동영상 46종 제작·배포

“그동안 청각장애인들은 눈으로만 부처님 법음을 접할 수밖에 없어 불교가 어려운 종교로 인식돼 왔습니다. 이제 청각장애인들도 일반불자들과 평등하게 법음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불교수화동영상이 마련됐다. 삼귀의·반야심경·정법가 등 불교의식 10종을 비롯해 최신 찬불동요와 봉축주제가 등 46종이 수화동영상으로 만들어져 연내 전국사찰 및 복지관 등에 보급될 예정이다.

조계종 장애인전법단(단장 도륜)은 11월 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불교수화동영상 시연회’를 개최했다.

장애인전법단장 도륜 스님은 이날 “그동안 청각장애인들에게 불교는 어려운 종교였다”며 “청각장애인도 일반불자들과 평등하게 법음을 접할 수 있으며 청각장애인들에게도 언제나 열려있다는 종교관을 심어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이날 장애인전법단이 공개한 불교수화동영상은 조계종 장애인전법팀 원심회(회장 김장경)와 광림사 연화원(원장 해성)이 전법단 지원으로 1년 여 동안 제작했다.

동영상에는 김경환 제1기 청각장애인 조계종 표교사 등 30여 명의 수화 전문가

들이 출연해 부처님 가르침을 수화로 표현했다.

연화원 해성 스님은 “40만 청각장애인 중 10%만이 불자인데 322개의 청각장애인 전승교회를 지닌 기독교계에 비해 불교계는 그 역할이 미미한 요인이 크다”며 “이번 수화동영상 제작 소식을 접한 불자 장애인들이 너무나 고마워하고 있다. 종단에서 장애인 표교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야심경 등 불교의식 10종 포함

찬불가·동요·봉축가 등

2500개 전국 사찰 등에 무료 제공

표교원 “또 하나의 역경불사” 강조

해성 스님은 “어린이 법회 시에도 수화동영상을 활용해 자라는 아이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불교수화 통일에도 기여

이번 동영상은 직접 편집한 김장경 원심회장은 “그 동안 불교수화가 통일된 부분



김경환 조계종 1기 청각장애인표교사의 '반야심경' 캡처 사진. 청각장애인의 입장에서 하단 자막과 박자를 나타내는 동자승 모습 등이 함께 첨가됐다.

이 없어 의역을 하곤 했다”며 “이번 영상을 통해서 불교의식이 통일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강사마다 조금씩 다른 지도방법을 지녔다. 동영상 제작과정에서 협의회를 구성해 불교수화를 정립한 의미도 크다”고 말했다.

원심회와 연화원은 청각장애인 4인과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수화협의회를 구성해 각기 다른 불교의식에서의 수화용어를 정리했다.

특히 ‘아제 아제 바라아제’와 같은 수인이 포함된 진언 등에서도 수화규칙을 정했다.

김 회장은 “먼저 수인을 보이고 수인의 의미를 모르는 장애인 불자를 위해 한글로 표현을 한다”며 “청각장애인들이 수인을

보면 말로 이해하려하기 때문에 짧게 표현한다”고 설명했다.

표교원(원장 지원)은 이번 장애인전법단의 불교수화동영상 제작을 전법단 모범사업으로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표교부장 송묵 스님은 “범어와 한문으로 된 경전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역경불사를 통해 불교를 전했듯, 장애인전법단의 수화 작업도 또 다른 역경불사”라며 “종단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번 장애인전법단이 제작한 불교수화동영상은 원심회 홈페이지(www.wonsim.net)에서도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노덕현 기자

“불심으로 공고한 평화통일 이룰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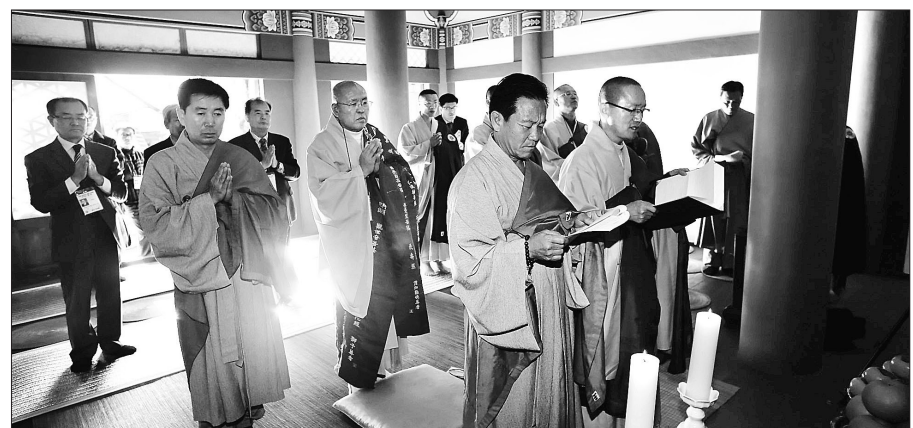
천태종·조불련 개성 영통사서

대각국사 912주기 합동다례제

천태종(총무원장 도정)과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강수린, 이하 조불련)은 공동으로 11월 7일 개성 영통사 경선원서 ‘영통사 낙성 8주년 기념 및 의천 대각국사 912주기 열반 다례제 남북합동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남북합동법회는 천태종총무원장 도정 스님, 총무부장 월도 스님, 사회부장 보광 스님 등 남측 대표단 20여 명과 리규룡 조불련 서기장, 차금철 부장, 리현숙 전국신도회 부회장 등 북측 대표단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자리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은 법어를 통해 “개성 영통사는 대각국사의 천 스님께서 천태교학의 원운한 가르침을 펼치시던 곳으로서 지난 8년 동안 남북 불자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불심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리규룡 조불련 서



천태종과 조선불교도연맹은 공동으로 11월 7일 개성 영통사에서 대각국사 912주기 열반 다례제를 봉행했다. 다례제는 영통사 낙성 8주년도 함께 기념했다.

기장도 “현재 북·남 사회의 불신과 대립이 깊어져 남북 교류가 많이 위축된 상태”라며 “조국통일은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목표인 만큼 관계 개선과 민족화합을 위해 불교계가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 스님과 조불련 차금철 부장이 함께 공동발원문을 낭독했다. 이 발원문을 통해 남북 대표단은 “우

리 남북 불교도들은 불심으로 화해해 남북 공동선언을 존중하며 민족 내부의 반목과 불신, 긴장과 대결을 견어내고, 공고한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용맹정진하겠다”며 “통일조국, 현재지상정도를 일으켜 세우려는 우리들의 서원이 원만성취 되도록 무량한 가호와 가피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다짐했다. 김주일 기자

조계종, 홍보영상

‘1700년 지혜’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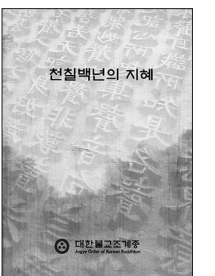
4개 국어... 해외공관 배포

조계종(총무원장 지승)이 한국불교의 문화와 전통을 알리기 위한 홍보동영상을 새롭게 제작했다.

‘1700년의 지혜’라는 제목의 홍보영상물(사진)은 8분56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국어로 제작됐다. 동영상은 1700년의 한국불교 역사와 문화를 감각적인 영상으로 통해 소개하고 있다.

기획국장 남전 스님은 “향후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의 새 홍보영상은 해외공관과 외국 소재 사찰 및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에 우선 배포된다. 신종일 기자



Chinese as Second Language

남경대학한국캠퍼스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중의대학) 특차 모집

‘한국캠퍼스 총장의 추천 입학제’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남경대학 한국캠퍼스와 함께 세계를 향한 날개짓을 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모집요강

- 한의학과 5년 - 120명
- 석사과정 3년 - 10명
- 박사과정 3년 - 10명
- 재경대학 4년 - 10명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3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2013년 12월 27일

4 문의처

한국상담 안내처: 불교조계종 총무원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전화: 02) 511-2026~7, 02) 511-1080 팩스: 02)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02)511-1080,2026